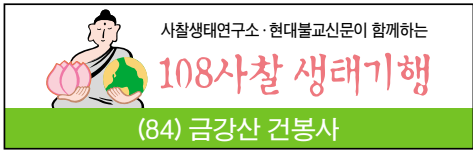


반 백년 통제로 원시생태계 유지



건봉사의 창건연대는 6세기 신라 법흥왕 때로 올라간다. 그 무렵 이 지역은 고구려 영토였다. 게다가 아도화상이 고구려 국적을 가졌으니, 건봉사는 고구려 옛 절이다.

신라 경덕왕 대에 발징선사가 이곳에서 열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열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만일회의 효시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31본사의 하나가 되어 전성시대를 구가했으나, 한국전쟁 통에 잦더미가 되어버렸다.

건봉사는 이름 앞에 '금강산'을 즐겨 내건다. 금강산(1638)에서 무산(1320)으로 내려온 백두대간이 향로봉(1296)을 세워놓고 설악산으로 남하하기 전 산줄기 하나를 북쪽으로 뻗어 울렸는데, 그 산이 해발 911m의 건봉산이다.

건봉사의 초입에 50여기의 부도와 30여기의 탑비가 흩어져있는 부도전이 있다. 부도전 주변에 가을을 여는 야생화들이 벌써 형형색색으로 단장을 하고 나섰다. 금평의다리, 영아자, 마타리, 무릇, 까실쑥부쟁이, 참나물꽃, 머느리밥풀꽃, 도라지, 덕덕 등은 8월 중순이면 건봉사 주변에서 만나는 꽃들이다. 습한 곳을 좋아하는 야산고비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

금평의다리는 여러해살이 풀꽃으로,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햇빛이 드는 습지를 좋아해서 부도전 맞은편 습지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꽃잎처럼 보이는 꽃받침은 분홍색을 띠고, 꽃술은 황금색을 띤다.

중부지방 깊은 산에서 볼 수 있는 영아자는 초롱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꽃으로, 햇빛과 습기를 모두 좋아한다. 키는 1m 가량이다. 털이 보송보송한 줄기 끝에 5개의 꽃잎으로 이뤄진 보라색 꽃이 핀다.

100년 된 홍송, 금강역사처럼 '우뚝'

부도전에서 500여m 가량이면 들머리 숲속을 만난다. 수령이 100년은 족히 보이는 노송들이 금강역사

처럼 서 있다. 줄기가 붉은 전형적인 홍송이다.

건봉사 주차장은 일제강점기 때 절에서 세운 봉명학교가 있던 자리이다.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 수 있도록 시멘트를 걷어내고 생태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듯하다.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는 불이문은 4개의 돌기둥 위에 팔자를 얹은 다포건물이다. 불이문 옆에 큰 팽나무 한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건봉사 주변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다. 몸집 좋은 산뽕나무도 한 그루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불이문을 지나면 건봉사 경내가 시작된다. 가람배치는 대웅전 지역, 옛 극락전 지역, 옛 낙서암(樂西庵) 지역, 적멸보궁 지역 등으로 나뉜다.

극락전과 낙서암 옛 터는 온갖 곤충들의 해방구이다. 풍중이, 팔중이, 여치, 검은다리실베짱이 등 메뚜기 종류도 많고, 노랑나비, 황오색나비, 팔랑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등 나비 종류도 이 구역에 많다. 그들을 노리는 왕사마귀, 파리매, 왕잠자리, 개구리 등의 천적들도 많다.

건봉사 주변에 노랑나비들이 흔하게 관찰되는 것은 옛 절터와 연병장에 햇빛이 양명하여 그들이 서식하기에는 그만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끼풀, 벌노랑이, 개자리, 고삼, 개망초, 엉겅퀴, 민들레 등이 봄부터 가을까지 그들에게 꿀을 제공해주고 있으니, 극락이 따로 없다.

낙서암 지역은 '용사활지(龍蛇活池)' '방생장계(放生場界)'라고 쓴 두 개의 돌기둥을 들어서면서 펼쳐진다. 서로 상극이라는 용과 뱀이 함께 사는 연못이요, 모든 생명의 자유로운 경계라는 뜻이니 이보다 생태적인 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길이가 6cm에 이르는 먹줄왕잠자리 알집이 미중도 없이 연못 속에 알을 낳고 있다. 먹줄왕잠자리는 남방계 잠자리이다. 지구온난화 탓인지, 근래 설악산 지역까지 나타났다. 보고가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북쪽인 이곳까지 올라와 서식산란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건봉사 주변에는 버들하늘소를 비롯하여 붉은산꽃하늘소, 왕풍뎡이, 청풍뎡이, 산뽕들이거저리 등 딱정벌레 종류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버들하늘소는 주로 검은 색과 검붉은 색인데, 딱지

날개(문은날개)에는 4개의 세로줄이 뚜렷하게 있어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주로 여름에 많이 활동하며 야행성이라 불빛에 잘 날아든다. 애벌레나 번데기 상태에서 썩은 활엽수 속에서 겨울나기를 하며 늦봄에 어른벌레가 된다.

건봉사에에는 도회지와는 달리 유지매미가 우점종이다. 몸은 흑갈색이며, 날개는 불투명하고 짙은 적갈색 무늬가 나 있다. 울음소리는 숲에 기를 꿸 소리와 흡사하다.

한때 산영교(山映橋)라고도 불렸던 능파교(凌波橋) 아래로 맑은 계류가 흐르고 가장자리로는 달뿌리풀이 그득하게 자라고 있다. 이 계류에는 버들치류의 달이 1급수 버들개개 살고 있다. 버들치보다 약간 작고 비늘이 짙다.

강원도 '고성' 하면 사람들은 먼 터서 '산발'을 떠올린다. 강원도의 악명 높은 산발은 거의가 군부대에서 포사격 연습 과정에서 발화되었다. 건봉사는 산발이 전각에 옮겨 불을 것을 방지하여 전각 뒤에 초목을 베어내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해놓았다.

농사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부터 주위에 제비가 귀해졌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절반에 가까운 43% 가량이 사라졌다고 한다. 오갈 데 없는 제비들이 몇 해째 건봉사를 찾아와 전각 처마에 등지를 틀었다. 논 한 텨기 없는 깊은 산중에 제비가 모여드는 것은 생태적 비극이다.

경내 잔디지붕 객사, 습기 조절 우수

경내에 잔디지붕을 한 객사가 눈길을 끈다. 잔디지붕은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따뜻하며, 습기 조절 능력도 우수하다. 그러나 벌레가 생기고, 배수기능이 떨어져 물이 쉼 연려가 있다. 주기적으로 잔디를 갈아줘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건봉사 일대는 전쟁 후 곧바로 군부대가 들어서 있던 곳이어서 지금도 허물어진 막사와 연병장 등이 잡초 속에 묻혀있다. 외곽으로는 통금철탄망이 살벌하게 휴전선으로 이어졌다.

반백년을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던 까닭에 주변에 포플러, 은행양, 현사나무 등이 생동맛게 들어와 있다. 게다가 한국전쟁 이후 들어온 외래귀화초본들



건봉사 줄기.

도 유난히 많다. 돼지풀, 미국실새삼, 미국쑥부쟁이, 미국자리공, 미국가막사리, 달맞이꽃, 방가지동, 서양민들레, 큰강아지풀, 서양등골나물, 풍란지, 털여귀, 환삼덩굴, 망초, 개망초 등 거의가 그렇다.

키가 1m정도 자라는 돼지풀은 한국전쟁 때 미군의 군화에 묻어왔다고 해서 일명 '양키풀'이라고도 부른다. 미국 원산의 귀화식물로서 저지대의 공터나 길가에 자라는 한해살이풀이다. 꽃가루가 눈이나 코에 들어가 안질과 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절에서 조경화로 심은 원추천인국도 미국산이다. '루드베키아'라고도 부르는 이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연이어 피고, 생존력이 강해 도로변에 손쉽게 심고 있다.

절 뒤로 등공대(騰空臺)로 가는 산길이 빼꼼이 나 있다. 등공대는 '소신대(燒身臺)'라고도 불리는데, 중흥조인 신라 발징화상이 여러 신도들과 열불만일회를 개설한 곳이다.

등공대로 가는 길 입구에 작은 저수지가 있다. 잘 관리하면 생태연못으로 제 몫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려스러운 것은, 합부로 방생한 붉은귀 거북들이 이 연못의 생태평화를 깨뜨리고 있다는 점

이다. 이 거북들이 집중호우 때 아래 계곡으로 내려가는 날이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건봉사 녹지 우수 천연보호구역 지정

등공대까지는 군사용 철조망 문을 지나 30분 거리, 주변의 숲은 소나무와 활엽수의 혼효림이다. 소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느티나무, 엄나무, 층층나무, 개울나무, 붉나무, 때죽나무, 쪽동백, 생강나무, 싸리나무. 군작전상 큰 나무들을 엮어다보니 나무들의 수령도 대부분 30년 안팎이다.

건봉사 주변의 생태계는 반백년의 오랜 세월 동안 군사지역으로 있었던 까닭에 크게 훼손되어 있지만, 건봉사를 벗어나면 원시생태계를 보여준다. 건봉산은 이웃한 향로봉과 함께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천연보호구역 제2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역의 생태계가 잘 보전된 까닭은 반백년 동안 민간인 출입통제가 있었고, 밭지 않은 곳에 동해안이 있어 생육 환경이 다양한 데 기인한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건봉사 전경.



원추천인국.



유지매미.



금평의다리.



버들하늘소.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株)評建이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있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 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評建

서울특별시 중로구 신교동 70-10 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pg@pyeonggeon.com

